

Since 2017-01-09

하루 한 사람 선교편지



ONE A DAY 365
PERSON

CANADA

AFRICA
ASIA

2023년

06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6월 선교편지를 나눕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제는 피부로 확실히 느껴집니다. 6월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두툼한 겉옷을 입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시대도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서로를 돌봄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해 내고 있는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곳이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몫을 꾸준히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롬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테자스리

유학생 신분으로 1년이 되었고 방학기간에 잠시 뭍바이로 가족을 만나러 가는 테자스리를 만납니다. 양 손 가득 선물꾸러미가 가득합니다.

힌두교인 테자스리는 고향에 있을 때, 친구에 초청에 따라 한번 교회에 가 본적이 있다고 합니다. 느낌이 어땠냐고 물어보니 평화롭고 거룩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셨음을 알려주고, 누구든지 그 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전합니다.



#블럭

블럭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토론토에서 이 곳까지 왔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저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메이카계입니다. 천주교라고 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물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다름을 설명해 줍니다. 누가 생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일은 자신이 만들 수 없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 거듭남 - 구원받음 - 천국 - 영생 - 자녀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거듭남 혹은 구원받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자유함이 없다. 자신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참 자유함이 예수님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블럭은 한번도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고백합니다.

태어나 보니 무슬림 가정있습니다



#소로쉬와 시마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이란에서 온 유학생 부부를 만납니다.

태어나 보니 무슬림인이었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슬람선교에도 세상 여러 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 해 봅니다.

사립기독교대학에 석사과정으로 유학을 왔지만 종교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신 것이다.

세상에는 의인없다. 거룩한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란다고 격려합니다.



#살파라즈

유학생 시므란을 만납니다. 지나가는 길에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큰 행사장을 지나면서 너무 큰 음악소리에 음악장르가 내 스타일은 아니야라고 건네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 커피샵에서 자반과 제이산 부부를 만납니다. 인도계인데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새롭습니다.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나가 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 없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아느냐 물어보니 그건 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성탄절은 산타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죽음에 넣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전합니다

복음은 참 자유함입니다



#칼마

도서관에서 오랜만에 칼마를 만났습니다. 고2 학생인데 경찰이 되고 싶어했지만 지금은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달째 보지 못하다가 오늘 지나가다 만나게 됩니다.

근황을 이야기하다가 대학입시를 두고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마는 무슬림인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신앙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안다.

열심히 살고, 애를 쓰지만 결국 내가 구원을 받았나 혹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이 없으면 인생이 잘 나가보

여도 결국 무엇인가를 빠진 것처럼 느끼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불교에 있었을 때는 업보라는 사상이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내가 부족하기에 천국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없음이 있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

인생이 불완전하고 죄인이기에 인생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 행위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는 참 자유함이 있었다. 나의 나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구원받음을 알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칼마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전합니다.

간증과 함께 복음을 나눕니다.

오늘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 한 사람

One Person A Day 365

왜 예수님을 믿어요?



#데이빗

고객서비스 센터에 볼 일이 있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데이빗이 제 뒤에 섭니다.

72세의 노신사는 학교에서 여전히 보조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인종들이 자기 가게에 있어서 자신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혼혈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줄이 줄어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죄성과 해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죄사함과 자녀됨과 영생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권유합니다.



#하르시

제 옆으로 하르시가 오더니 앉아서 힌디어로 된 방송을 보는데, 소리가 커서 귀가 아플 정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물어보니, 힌두교종교이야기라고 합니다.

힌두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있는데, 예전에 불교도였기 때문인데 지금은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종교를 바꾸게 되었다고 묻습니다. 물어오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간증을 나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 이 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사람은 죄인이니 그 죄를 없앨 방법이 사람에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음을 전합니다.

하르시는 종교는 결국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묻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도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 종교의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고 참 자유함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하르시에게 복음으로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기쁨의 복음입니다



#클레멘트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가나에서 온 유학생 클레멘트를 만났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광장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클레멘트는 안식교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있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원은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 영생, 천국과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떼어 놓고 이해 할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을 물어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되심을 믿지만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인 즉 오직 길 되신 예수님 이름위에 당신의 행위를 넣는 것임을 알지 못하냐라고 되물으면서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구원은 사람이 행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즉 복음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난 새 생명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

복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

클레멘트는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Since 2017-01-09

ONE PERSON A DAY 365. 하루 한 사람

CANADA, AFRICA & ASIA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하는 하루 한 사람!



소개합니다

캐나다는 인구의 10~20%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처럼 점점 교회수가 줄어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늘어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곳은 분명 선진국이지만,
복음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후진국입니다.

캐나다에서는 2017년 1월 9일부터 지금까지
하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차 지역탐방후(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서 첫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HOPE Church.(Ethiopia)

매 1년마다 2~3개월을
아프리카 한 나라에 들어가서 보내면서
하루 한 사람 복음전도사역을 통해서
현지 개척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전도, 기도동역, 자원봉사등)

선교사 : 김민규, 백남주, (하은, 은준, 준현)

E-mail : oneperson365@icloud.com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gideon.kim.7169>
Instagram : @onepersonaday365

기도해주세요

1. One Person 365 하루 한 사람

1. 매일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서
2.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도록
3. 하루 한 사람 국제 연합 (에티오피아)

2.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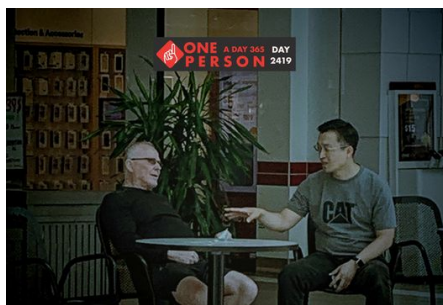
1. 가족 모두가 건강해서 사역에 힘내도록
2. 가족의 믿음과 삶이 평안하도록
3.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이웃이 되도록

3. BSM 방송사역을 위해서

1. 선교지에 필요한 티칭을 제공하도록
2. 함께 섬길 제작 동역자들을 만나도록
3. 필요에 따라서 주께서 공급해주시도록

4. 아프리카 2차 교회개척과 Acts the World

1. 2023년 드디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연말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한 국가에 문
이 열리기를 기도해주세요.
2. Acts the World 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